

대광명사 인제대 해운대 백병원... 삼위일체 일깨우는 보살행

‘배우고 수행하고 봉사하라’



부산 대광명사는 매주 수요일 해운대 백병원에서 자원봉사 및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봉사자와 환자들이 함께 법회를 하고 있는 모습.

봉사자가 병마에 고통 받는 환우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행한다면 봉사자와 환우 중 누가 고마움을 느낄까. 이곳에서 보살행을 펼치고 있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한결같이 '나 자신'이라고 대답했다.

부산 대광명사(주지 목종)는 2010년 개원한 인제대학교 부속 해운대 백병원에서 매주 수요일 자원

봉사 및 병원방문을 관리 및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1월 19일 패불과 단상을 여법하게 차린 지하2층 회의실에서 정기법회가 시작됐다.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단지 건강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욕망과 집착으로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되새겨보라"며 "질병 등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원 환우들을 위한 즉문즉답, 환우 패우를 기원하는 발원문 낭독, 축원 등으로 법회는 40여 분 만에 마쳤다. 이는 병실을 오래 비울 수 없는 환우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다.

해운대백병원에는 대광명사 소속 80여 자원봉사자들이 남달라 봉

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월~토요일 원무과에서 접수 및 안내를 돕는가 하면 비품창고에서는 침대 시트 등 침구류의 정리정돈과 교체를 도맡아 한다. 공급실의 면봉, 거즈 등 각종 의료용품도 봉사자들의 손길을 거쳐 간다. 그밖에 요일별로 조를 편성한 봉사자들은 병당을 참배하는 환우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불자환우 패우봉사 및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큰 대학병원이 불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24시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병원 범당 개원이 결코 순조롭지 않은 않았다. 사립대학병원에서 종교 형평성을 고려해 세 종단이 종교교실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목종 스님은 "병원에서 불교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은 병원 탓이나 이웃종교 탓이 아니다. 우리 불교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한다. 봉사는 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조계종 자부심만 있고 현실직시 못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총장 심 산 스님, “4월 결집대회 개최”

“조계종도라는 자부심만 있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중소 규모의 조계종 사찰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지역 조계종도 연합체인 '조계종 부산연합회' 사무총장 심 산 스님(홍법사 주지, 동련 이사장)은 연합회 출범을 준비하며 부산 전역의 조계종 사찰을 둘러봤다. 유명한 사찰 몇 군데 이외에는 조계종임에도 열악한 곳이 더 많았다. 심산 스님은 “조계종도로서 사회적 기대와 요청에 불교가 얼마만큼 부응했는지 반성하고, 한국불교 발전에 든든한 초석이 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불)는 1월 11일 오후 3시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범종단 연합체인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와 달리 조계종 불교연합체는 발기인 대회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발기인 대회를 준비하면서 증명과 고무문 모실 어른스님들께 찾아가 설명을 해드리니, 왜 이렇



6차례 실무회의와 5차례 준비위원회 끝에 조계종부산연합회 창립 “수행·전법 강화할 터”

게 늦게 왔다고 합니다. 종단의 겨레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다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발기인대회를 마쳤을 뿐인데 일대의 혁명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습니다. 사실 뚜렷하게 드러나는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찾아가 연합회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권유해야 할 스님들도 많습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수행과 전법'의 가치를 내걸고, 조계종도들이 수행과 전법, 자비실천의 정신으로 종지종풍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됐다. 구랍 4일 수불 스님 발의로 '조계종 부산권 중도들의 모임 추진' 회의를 갖고, 6차례 실무회의와 5차례 준비위원회를 거쳐 이번 발기인대회를 갖게 됐다. 회장 수불 스님이 발기인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2011년 주요 사업 계획은 △오는 4월 수행과 전법을 위한 포교역량 결집대회 △조계종도 교육 및 정보공유를 통한 정체성 확립 △성도제일 기법법회를 개최해 성도제일의 재인식과 수행·전법 환경의 조성 △기존 부산시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봉축 및 팔관회 행사의 적극 동참 등 총 4가지이다.

박지원 기자

범어사 방화범 검거... 사찰서 잔일 돕던 거사

수십년 절집 생활에도 부처님 법 알리지 못한 공업 탓

경내 돌며 범행 계획

1월 15일 범어사 천왕문 방화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이 미궁속으로 빠진지 31일만으로, 범인의 결정적 단서는 경내에 설치된 37대의 CCTV에 담겨있었다.

1월 15일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정용환)는 범어사 천왕문 방화사건의 피의자 이 모씨(43)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CCTV 화면에 잡힌 피의자의 걸음걸이와 착의, 동선 등을 토대로, 동일수법 전과자, 정신이상자, 타종교인, 내부인 등 용의자와 정밀 비교분석해왔다.

이후 사건 2주 전인 2일과 8일,

13일 이씨가 범어사 경내를 돌며, CCTV 위치를 파악하는 모습이 폐쇄회로에 잡혔다. 구랍 7일과 10일, 12일에는 기상청 전화(131)로 범행당일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은 천왕문 방화 이외에도 범어사 소유 임야에 2차례 방화, 범어사 성묘박물관 지하출입문 손괴, 법고 손괴 등 추가 범행을 자백했다.

피의자 이 모 씨는 12월 19일 소환 조사됐었다. 하지만 경찰은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한 그를 돌려보낸 바 있다.

범인은 범어사 산내 암자 청련암에서 연고 없이 기거하던 이 모 밝혀

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 모 씨는 자신의 범행동기가 온갖 온갖 일로 건강이 악화됐고, 범어사 보제루 복원봉사가 자신의 지병과 관계가 있다고 믿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청련암에서 수년째 기거하면서 제(祭)를 돕는 등 잔일을 했다. 하지만 사찰과 교계에서는 사람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부대중 모두의 업으로 참회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편, 경찰은 지방청 소속 경찰 37명, 경찰서 소속 40명 등 총 77명으로 구성된 대단위 수사본부를 설치했으나, 사건 발생 30일이 지나야 범인을 검거했다.

박지원 기자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범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범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

전통 상감청자 범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범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범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범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계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당당한 승려되자!

일불선교종 제 5대 종정으로 부산 미륵사 정각 스님 추대



일불선교종 제5대 종정으로 부산 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이 추대됐다.

일불선교종은 1월 12일 오후 2시 부산 영도 미륵사(회주 정각·사진)에서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종정 추대식을 봉행했다. 지난해 10월 제4대 종정 봉해 스님의 임종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추대는 종정추대법에 의거 구랍 13일 제39차 정기중앙총회에서 이뤄졌다.

이날 법회에서 정각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한 10가지 비전을 밝혔다.

한편 일불선교종은 17일 코모도 호텔에서 이웃종교지도자 10인과 '(가칭)정체성바로세우기 국민운동 연합(상임대표 정각)' 창립준비위원회를 꾸렸다.

박지원 기자

군산불자들 신묘년 신년하례 법회 봉행

군산 지역 불자들은 1월 20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신묘년 새해를 맞아 '신년하례 및 군산발전 기원 조찬 법회'를 봉행했다.

군산 사암연합회(회장 재근. 관음사)가 주최하고 군산 신도연합회(회장 허양)가 주관한 이날 법회는 관음사 재근 스님, 흥천사 지한 스님, 강봉군 국회의원, 문동신 군산시장, 김용화 전북도의원, 문면호 전북도의회 부의장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재근 스님은 법회에서 "정법을 이어가는 불자로서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열어가자"를 다짐하고 지역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스님은 "전국이 구제역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으로 불자여러분들이 앞장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등축제 및 빛고을아카데미 법인화 추진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올해부터 광주불교행사를 지역 문화축제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1월 17일 광주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신년 기원법회 및 성도절법회에서 △빛고을연등축제를 '우리 빛 관등축제'로 변경하고 광주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빛고을불교아카데미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로 이끌어 갈 것을 밝혔다.

우진 스님은 5일 신년단체 간담회에서 "우리 빛 관등축제와 빛고을불교아카데미의 법인화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일행선 광주전남지사장